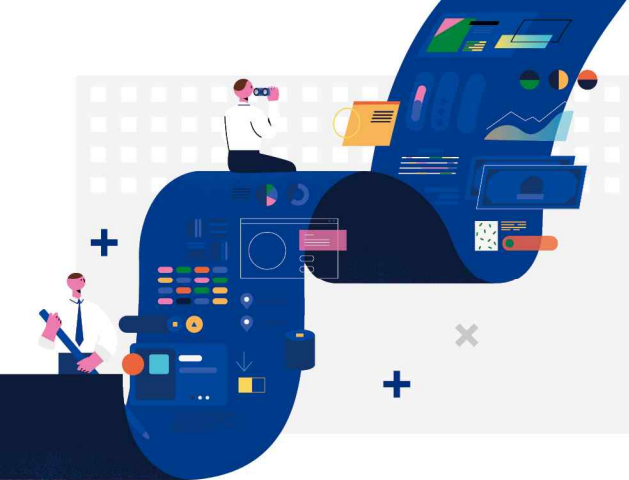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7호 (2024.09.06)

- 이 슈
(산업) 인천시 로봇산업 실태와
정책적 추진 방향
-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7호 (2024.09.06)

Cotents

I. 이 슈

(산업) 인천시 로봇산업 실태와 정책적 추진 방향 1

II.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교육) 유보통합 첫 걸음...‘영·유아학교’ 152곳 시범 운영 11

(금융)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별 DSR 관리 시행 11

(산업) 소부장 기업을 ‘슈퍼 울로! 산업부, 4분기 지원전략 발표 예정 12

(경제) 정부, 유동성 공급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구제 추진 12

(금융)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으로 금융거래 피해 보호 13

(기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마련...국가전략기술 체계적 투자 13

(교육)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는 ‘디지털튜터’ 교육생 모집 14

(경제) 2025년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 규모 편성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 책임연구원
이진규	인천테크노파크 로봇센터 과장

산업 > 인천시 로봇산업 실태와 정책적 추진 방향



#첨단로봇 #로봇융합 #로봇산업 실태조사 #인천 로봇산업 육성

- 글로벌 로봇시장의 규모는 2016년 248억 달러에서 2022년 374억 달러까지 성장하였으며, 2028년에는 656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4년 3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Statista Market Insigh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은 2016년 248억 달러에서 2028년 656억 달러로 연평균 10.2%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
 - 활용 부문에 따라 구분하면 산업용 로봇시장은 '22년 83억 달러에서 '28년 104억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용 로봇시장은 '22년 290억 달러에서 '28년 551억 달러로 연평균 14.2%의 성장률로 고성장하며 로봇산업의 시장 규모 확대를 주도할 전망
 - 제조(산업용) 로봇 분야의 경우 화낙·야스카와·미츠비시(일본), ABB(스위스), KUKA(중국) 등 5개 기업이 전체 시장의 52~58%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용 로봇 분야는 확고한 시장 선도기업이 없고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가 활발한 편으로 산업용 로봇 분야에 비해 경쟁이 치열한 상황



* 자료 : Statista Market Insights(2024.03)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글로벌 로봇산업 시장 전망 및 연평균 성장률(2016~2028년)

- 로봇산업은 AI·5G 등의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한 대표적인 산업으로, 반도체, 첨단부품, 이차전지 등 급변하는 산업 분야에 대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적 전략산업으로의 잠재력이 부각
 - '로봇'이란 협의로는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용 로봇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더욱 포괄적인 범위로 규정하자면 자율주행 모빌리티, AI 스피커 등을 포함하는 개념
 - 로봇은 다양한 산업에의 융합을 통해 사회와 기업이 △생산가능인구의 급격한 감소 △인구구조 고령화 등 노동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고위험업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

- 로봇산업은 전통적 제조업에 IT, 통신, AI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산업이면서, 사회 전반의 산업적 혁신과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
- 로봇산업은 실제 로봇 및 로봇 시스템을 설계·개발·제조하는 로봇 제조사를 중심으로, 후방산업인 △소재·부품 △SW·네트워크 △빅데이터 등과 △시스템통합 △제조·서비스 수요처 등의 전방산업으로 구분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2019)

[그림 2] 로봇산업 생태계

- 주요 선진국 정부에서는 로봇을 기술패권 경쟁 흐름 선도를 위한 필수기반 기술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이며, 국내에서도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실시
 - 미국 바이든 정부는 FRR(Foundation Research in Robotic) 프로그램 등을 통해 로봇산업 분야에 13억 달러 규모의 R&D를 지원
 - EU는 ADRA(AI, Data and Robotics Association) 프로그램을 통해 '27년까지 관련 산업에 26억 유로의 투자를 진행할 계획
 - 일본은 '혁신적 로봇연구개발 기반구축사업('20)'을 추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14차 5개년 로봇산업 발전규획('21)'을 통해 로봇 보급 확대 및 테스트 검증센터 구축계획 등을 수립
 - 우리나라 역시 첨단로봇·제조 분야를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로 선정하고 산업육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로봇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육성에 박차
 - 우리나라는 '22년 10월 첨단로봇·제조를 포함한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한 이후 '24년 2월 각 기술별 육성을 위한 전략 로드맵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각 분야별 프로젝트 및 투자를 진행할 계획
 - 대구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정부 로봇산업 육성 거점지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국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로봇기업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산업육성을 추진 중
 - 또한 서울시는 수서 로봇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로봇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클러스터 내 로봇기업 유치 확대를 위해 노력 중

[표 1] 로봇산업 지역별 주요 정책 현황

구분	서울	대구	경북	경남
특화방향	서비스로봇	제조로봇	농업·물류 실증	제조로봇, 로봇컨텐츠
앵커시설/ 인프라	수서 로봇테크센터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로봇랜드
주요 정책	특화펀드 조성, 로봇클러스터 조성 로봇서비스 대중화	국가로봇테스트필드 5대 미래산업 선정	농업 로봇 연계 지원 로봇 직업혁신센터	제조로봇 개발 및 보급 중고로봇 재제조 리퍼브센터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a) 참고 및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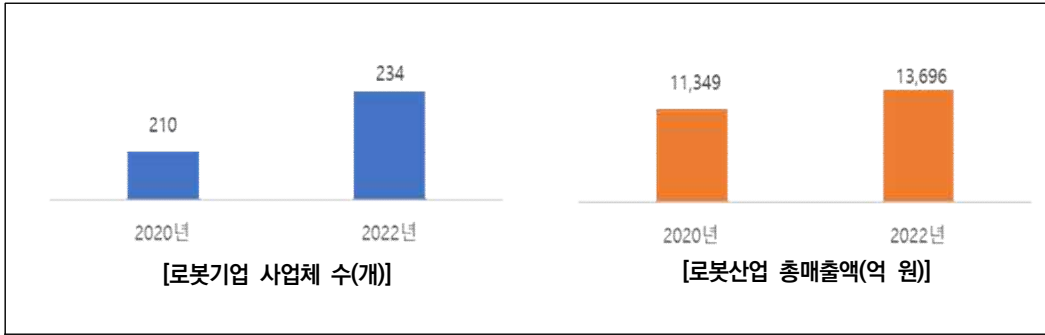
- 인천시 역시 2008년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기점으로 지역 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로봇산업을 6대 집중육성 전략산업으로 선정
 - 인천시는 ‘19년 「인천광역시 지능형 로봇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19.11.07.)」를 제정하여, 지속가능한 로봇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
 - 현재 인천시 서구에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집적시설인 로봇타워 및 로봇R&D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시설 △테마파크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이 집적되는 로봇클러스터를 조성
 - ‘23년 인천시는 △로봇 △반도체 △바이오 △디지털·데이터 △미래차 △항공 등을 6대 집중육성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1년 단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에 도전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지원
 - 특히 로봇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 조성 △로봇문화 확산 △특화로봇 수요 창출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등 추진
 - 로봇산업은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혁신을 촉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며, 노동시장 고령화 및 생산현장 안전성 향상 등의 문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한 산업육성이 필요
 - 이에 본 고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가 실시한 ‘2022 인천 로봇산업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인천 로봇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인천의 지역적 장단점을 중심으로 향후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추진 방향을 제안
- ‘22년 기준 인천지역 내 로봇산업과 관련된 기업 수는 ‘20년 대비 24개 증가한 234개로 파악되었으며, 관련 기업의 총매출액은 ‘22년 기준 1조 3,696억 원으로 ‘20년 대비 20.7% 성장
 -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3)에 따르면 ‘22년 기준 전국의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4,505개 사로 그중 절반 이상인 2,366개 기업이 수도권에 입지하고 있으며, 인천의 로봇산업 사업체 수는 234개로 수도권 내 약 10% 수준
 - 기초지자체별로 보면 로봇기업은 주로 △서구(85개, 36.3%) △남동구(59개, 25.2%) △연수구(41개, 17.5%) 등 3개 자치구에 인천 전체 로봇기업의 79.1%가 위치

[표 2] 인천시 기초지자체별 로봇산업 사업체 분포

(단위: 개, %)

구분	서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미추홀구	동구·중구	합계
사업체 수	85	59	41	22	12	10	5	234
비중	36.3	25.2	17.5	9.4	5.1	4.3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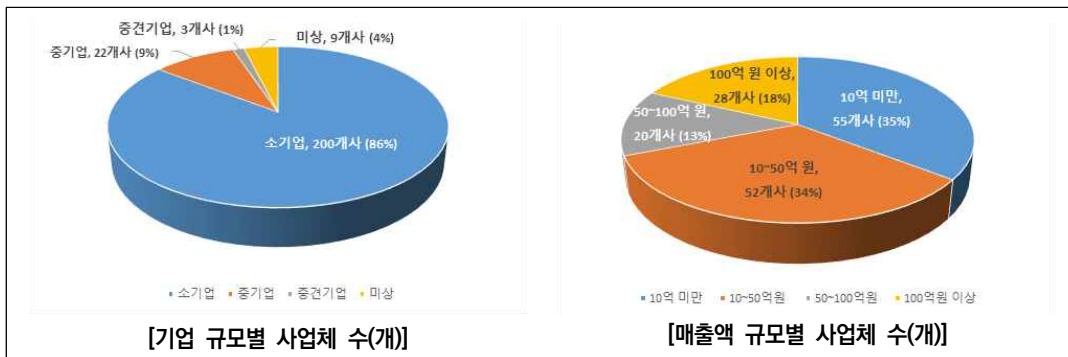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b)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b)

[그림 3] 인천 로봇산업 사업체 수 및 매출액('22년)

- 인천시의 로봇산업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약 35%가 연 매출 10억 원 미만의 영세기업인 것으로 확인
 - 인천시 전체 로봇산업 영위 기업 234개 중 85.5%에 해당하는 200개 기업이 기업규모 구분상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
 - 2022년의 매출액 정보가 없는 79개 기업을 제외하고 인천시 로봇기업의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 기업이 55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다만 매출액 정보가 없는 79개 기업 역시 대체로 영세기업일 것으로 추정되어, 이를 포함하면 전체 로봇산업 영위 기업의 절반 이상이 연간 매출액 10억 미만일 것으로 예상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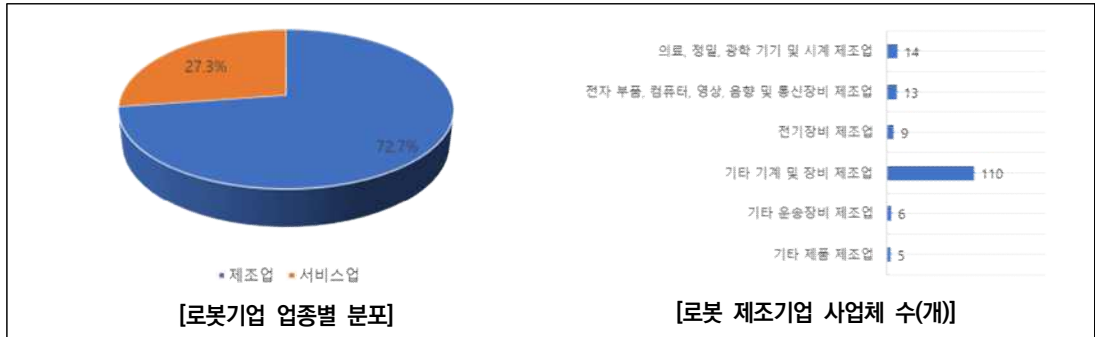
* 주 : 매출액 규모별은 인천 로봇산업 사업체 수 조사 대상 중 매출액 정보가 있는 기업에 한함(미확인 기업 79개)

[그림 4] 인천 로봇산업 기업 규모별 및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 인천시 로봇기업의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72.7%인 165곳은 제조업 분야를, 62곳(27.3%)은 서비스업 분야를 영위
 - 로봇 제조기업의 부문별 분포를 살펴보면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이(66.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8.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7.9%) 순
 - 로봇 서비스기업은 총 62개 사로 정보통신업(29개)을 영위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으며,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4 •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3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9개)이 다수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b)

* 주 : 결측값 7개사 제외

[그림 5] 인천 로봇산업 업종별 분포

- 인천 로봇산업 사업 분야별 기업 수를 살펴보면 제조용 로봇이 38.5%(90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로봇부품 및 SW 26.9%(63개) △전문서비스용 20.1%(47개) 순
 - 전국 로봇산업 분야별 비중과 비교해 보면 인천 로봇산업은 제조업용, 전문서비스용 로봇 업체가 상대적으로 많고, 로봇부품 및 SW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
 - 인천시 로봇산업의 기업규모 및 사업 분야에 따른 기업 수를 상세히 살펴보면 제조용 로봇을 다루는 소기업이 81개(3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로봇부품 및 SW 분야의 소기업 55개(25.6%) △전문서비스용 로봇 소기업 36개(16.7%) 순
 - 중기업은 제조용 로봇 분야 7개, 전문서비스용 분야 8개 기업이 있으며, 중견기업은 전문서비스용 2개, 로봇부품 및 SW 1개 수준

[표 6] 인천 로봇산업 분야별 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개, %)

구분	제조용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로봇부품 및 SW	기타	합계
전국	568 (22.6)	360 (14.3)	161 (6.4)	1,420 (56.6)	- (0.0)	2,509 (100)
인천	90 (38.5)	47 (20.1)	21 (9.0)	63 (26.9)	13 (5.6)	234 (100)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b), 한국로봇산업진흥원(2023) 참고 및 재구성

[표 7] 인천 로봇산업 분야별·규모별 사업체 수 및 비중

(단위: 개, %)

구분	제조용	전문서비스용	개인서비스용	로봇부품 및 SW	합계
소기업	81 (37.7)	36 (16.7)	18 (8.4)	55 (25.6)	190 (88.4)
중기업	7 (3.3)	8 (3.7)	1 (0.5)	6 (2.8)	22 (10.2)
중견기업	- (0.0)	2 (0.9)	- (0.0)	1 (0.5)	3 (1.4)
합계	88 (40.9)	46 (21.4)	19 (8.8)	62 (28.8)	215 (100)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3b)

* 주 : 결측값 19개사 제외

- 인천의 경우 △기업 수 △산업인프라 △로봇 제조 연관산업 집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로봇산업에 강점이 있으나, 대형 앵커기업 부재 및 소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로봇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할 필요
 - 제조용 로봇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인천 로봇산업은 '22년 기준 매출액 합계가 약 1.4조 원에 달할 만큼 관련 산업 분야가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이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요건은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편
 - 인천은 관내 15개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구축되어 있어 제조업 관련 기반이 견고하며, 산업단지내 입지한 기업들로부터 발생하는 제조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상당 수준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
 - 인천로봇랜드 내 로봇타워, 로봇R&D센터, 로봇실증센터 등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로봇산업을 지역의 6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는 등 로봇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도 확고한 편
 - 반면 로봇산업 전반에서 생산성 및 기술의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앵커기업이 부재하다는 점과 관내 로봇산업의 산업구조가 소기업·영세기업 중심이라는 점, 입지 요인 등으로 인해 고급 인력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보유했다
 - 관내 로봇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로봇 스타트업 발굴·육성 ②기술혁신형 유망기업 육성 ③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④기존 산업-로봇산업의 융합 촉진 및 생태계 활성화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 정책 마련이 요구
 - 관내 로봇산업의 전반적인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혁신 스타트업 발굴 △유망기업 집중지원체계 구축 △기술개발 투자 연계 △해외진출 금융·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로봇기업의 창업·성장을 지원하고, 로봇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앵커기업 유치를 통해 로봇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필요
 - 인천 로봇산업 성장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중장기 육성 전략 수립을 통해 산업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기업-대학-연구소 간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여 △규제발굴 △기업 네트워킹 △로봇 전문인력 양성 등 로봇산업 발전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이 요구
 - 또한 공항, 항만, 산업단지 등 기존에 인천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특성(물류·제조)을 고려하여 관련 부문의 로봇 수요를 발굴하고, 기존 산업에 융합·활용이 가능한 로봇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로봇기술 실증시설 등을 구축하는 등 산업의 확장성을 더욱 넓힐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건설

건설1) 및 주택시장 동향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기성 #주택허가 #미분양

- **(전국건설)** 2024년 7월 국내 건설시장은 선·후행 지표가 전반적으로 전년동월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행지표의 기저효과와 동행지표의 증가세 둔화를 고려했을 때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전망
 - **(수주·허가)** 건축인허가 면적 및 건설수주액은 지난해 건설경기 부진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약보합세가 지속
 - 지난해 수주 부진의 기저효과로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모두 전년동월비 증가함에 따라 7월 건설 수주 총액은 전년동월대비 28.4% 증가한 1,211.3백억 원을 기록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월대비 약 50.0% 급감한 수준
 - 건축인허가 물량은 전년동월대비 0.9% 증가, 전월대비 5.3% 감소한 8,563천m² 수준으로, '22년 5월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감소세가 지속
 - **(착공·기성)** 건축착공 면적과 건설기성 모두 증가세가 둔화하며, 건설경기 회복이 난망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39.8% 증가, 전월대비 4.5% 감소한 6,525천m² 수준으로, '23년 말을 기준으로 다소 회복하는 듯 보였던 착공 면적이 약보합세로 전환
 - 7월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3.4%, 전월대비 16.6% 감소한 1,321.0백억 원 수준을 기록하며, '21년 이후 수주·허가·착공 등 선행지표의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건설기성의 증가세도 점차 둔화
- **(인천건설)** 인천시 건설경기는 '24년 들어 선행 및 동행지표가 다소 개선되며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7월 기준 전반적인 지표가 대체로 전월대비 급락하여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꺾인 상황
 - **(수주·허가)** 인천지역의 7월 건축허가 면적은 '23년 5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수주액이 '23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이며 감소
 - 인천 건설수주는 지난해 수주 부진의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65.3%, 증가한 22.1백억 원을 달성하였으나, 이는 전월대비 87.9% 급감한 수준으로 '24년 들어 최저 수주액을 기록
 - '24년 7월 인천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월대비 53.4%, 전년동월대비 64.8% 감소한 224천m² 수준으로 지난 4월 이후 3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하였으며, '23년 5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착공)** 인천의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02.4%, 전월대비 8.7% 증가한 283천m²를 기록했으나, 이는 지난 '23년 한 해 동안의 착공 면적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건설 선행지표 자체의 개선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

1) 건설산업 시장 구분 시 공공부문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민간부문은 발주자가 민간기관 또는 민자사업이나 국내 외국기관인 경우를 의미함.

[표 1] 건설산업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지역	구분	'23.12	'24.01	'24.02	'24.03	'24.04	'24.05	'24.06	'24.07
전국	수주액 (증감률)	3,359.3 (42.7)	1,121.0 (-39.3)	1,075.4 (-4.7)	1,295.6 (11.3)	1,445.3 (51.2)	1,271.1 (-16.6)	2,422.2 (36.9)	1,211.3 (28.4)
	기성액 (증감률)	1,779.8 (-0.5)	1,456.8 (19.5)	1,311.7 (2.9)	1,491.4 (-1.6)	1,490.3 (2.5)	1,424.2 (-1.1)	1,583.9 (-3.3)	1,321.0 (-3.4)
인천	수주액 (증감률)	109.8 (-10.1)	91.9 (214.0)	115.1 (121.7)	44.6 (57.8)	141.7 (202.0)	93.0 (-55.3)	182.6 (36.6)	22.1 (65.3)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은 최근 연도에 진행된 '건설업조사'에 근거하여 각각 총기성액의 54%, 50%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하여 작성된 정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건축허가 및 착공은 연면적(m²)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축은 전국 기준, 우축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2024.07)

- **(전국주택)** 2024년 7월 기준 전국 주택시장은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스트레스 DSR 2단계 실시에 따라 주택시장의 구매 수요가 증가하며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소폭 감소
 - **(허가)** 2024년 7월 국내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8.7% 감소,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한 21,817호 수준으로, '23년 12월 잠시 급증했던 주택 인허가 물량이 '24년 들어 약보합세²⁾
 - 공공부문은 지난 6월 인허가 취소 물량으로 발생으로 인해 전월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허가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인허가 수가 5개월째 지속되던 전년동월대비 감소세에서 벗어남에 따라 총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월대비 증가
 - **(미분양)**³⁾ 2024년 7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전월대비 3.0% 감소, 전년동월대비 13.8% 증가한 71,822호를

2) 주택의 경우 공급(입주)까지 인 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3) 통계청 및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분양자료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자료가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

기록하며, '23년 11월 이후 지속되던 상승세가 소폭 둔화

-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8.0%, 전년동월대비 77.4% 증가한 16,038호로, '24년 들어 증가세 지속

○ **(인천주택)** 2024년 7월 기준 인천 주택시장은 민간 부문 주택건설 인허가의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는 반면, 미분양 주택 물량은 지난 5월 대비 2개월 연속 감소

- **(허가)** 인천의 2024년 7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57.2%, 전년동월대비 63.8% 감소한 286호 수준으로, '24년 2월부터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며 시장이 위축

- 인천시 주택 인허가의 경우 계절에 따라 등락 폭이 큰 편이긴 하나, 허가의 대다수인 민간 부문의 물량이 2개월 연속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22년 이후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미분양)** 2024년 7월 인천의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31.1% 감소, 전년동월대비 135.1% 증가한 2,849호로, 지난 5월 기점으로 증가세는 꺾였으나 아직까지는 예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

[표 3]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및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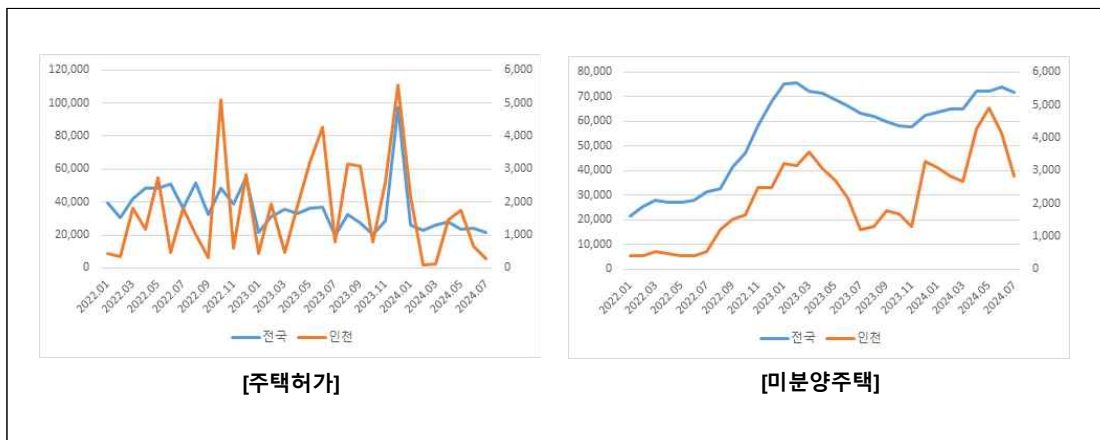
(단위 : 호, %)

항목		'24.04	'24.05	'24.06 (p)	'24.07 (p)	'23.07	전월비	전년 동월비
허가	공공	1,849	534	-200	1,143	913	671.5	25.2
	민간	26,075	22,958	24,086	20,674	18,794	-14.2	10.0
미분양	민간	71,997	72,129	74,037	71,822	63,087	-3.0	13.8
	(준공후)	12,968	13,230	14,856	16,038	9,041	8.0	77.4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2 : 주택허가 통계는 월별 누계액 자료에서 전월 자료를 제한 각 달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용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주택 건설인허가 및 미분양 현황(2024.0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4.07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25.9	18.8	99.5	9.3	141.9	-20.8	147.9	17.5	152.5	19.0	154.1	-7.1
자동차	114.2	-9.9	115.2	-7.4	118.6	2.2	103.4	-16.7	94.0	-26.2	120.6	-0.6
기계장비	100.5	5.7	102.2	5.7	134.3	-9.8	150.1	15.1	137.5	4.9	166.3	-12.8
바이오-의약	162.8	18.7	136.7	12.8	-	-	303.0	64.8	135.4	32.9	-	-
바이오-화장품	92.2	4.9	95.5	4.4	102.2	1.6	124.0	19.3	103.2	1.8	125.6	22.4
건설 수주액 (억원)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7,163	26.2	93,778	29.6	923	86.4	1,285	59.6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통계청 계절조정으로 인해 2024년 1월 발표 자료부터 값이 수정되었으며,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교육

유보통합 첫 걸음... '영·유아학교' 152곳 시범 운영



#교육부

- 9월 1일부터 유보통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전국 15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영·유아학교'가 운영될 예정
 - 금번 시범사업은 본격적인 유치원 및 어린이집 통합 이전에 유보통합의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을 학부모 및 교사 등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사업
 - 시범학교는 △충분한 운영시간(기본 8시간, 수요 맞춤 4시간 등) 보장 △교사 대 영유아 수 적정화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교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등 현장의 요구 및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수행
 - 17개 시도교육청은 시범학교 관리 방안 마련 및 자문단·원장협의체 등의 구성을 통해 시범학교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영유아 교육·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및 직무연수 추진 △영유아 정서·심리센터 운영 △장애 영유아 대상 맞춤 지원 추진 등 특색사업을 추진할 예정

총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 수									비고
	유치원			어린이집						
	계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민간	법인	가정	직장	
152	68	8	60	84	25	24	14	13	8	통합유치원(4), 장애통합·전문어린이집(16) 포함

금융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별 DSR 관리 시행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및 시중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별 DSR 관리'를 시행
 - '2단계 스트레스 DSR'은 0.75%p의 스트레스 금리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이보다 더 강화된 1.20%p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
 - 스트레스 DSR*은 대출 등을 위해 DSR을 산정할 때 금리변동 위험 반영을 위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2단계에서는 하한선의 50% 수준을 기준으로 규제
 - * 규제 도입의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4년 상반기에는 산출된 가산금리의 25%(1단계), 9월부터는 50%(2단계)를 적용
 - 또한 은행권은 9월 1일부터 신규 취급하는 모든 가계대출에 예외없이 내부관리 용도의 DSR을 산출하여, 은행별 가계부채(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8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슈퍼 을 프로젝트 현장 간담회'를 진행을 통해 국내 소부장 기업을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슈퍼을(乙)*'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전략(안)」을 발표
 - * '슈퍼 을(乙)'이란 모방 불가능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 지위를 확보한 시장 주도 기업을 의미
- 산업부는 국내 소부장 기업의 성장을 위해 △슈퍼 R&D △슈퍼 패스 △슈퍼 성장 패키지를 통해 소부장 기업에 연구개발·인증·금융 등의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24년 4분기 내에 「슈퍼 을 소부장 기업 성장 지원전략」을 추가로 마련·발표할 계획

구분	주요 내용
슈퍼 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슈퍼 을 R&D 추진위원회'를 통해 기업의 R&D·성장전략 로드맵을 평가하여 '선행기술(2년)→상용화 기술(3년)→후속기술(2년)' 등 7년의 통합 R&D 지원 • '24년 8월 말 이후 관련 사업 공고 예정
슈퍼 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기업 R&D의 조기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보를 위해 △특허 표준 △인증 △글로벌 수요기업 발굴 △KOTRA 수출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소부장 기업의 개방형 혁신 지원
슈퍼 성장 패키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지원 △소부장 특화단지 테스트베드 △해외기업 M&A 포괄지원 △디지털 소재 개발 서비스 확충 등 기업의 성장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25년 '슈퍼 을 성장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가 '위메프·티몬 사태'의 피해기업 구제를 위해 유동성 공급을 추가로 확대하고,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 구제 방안과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
 - 기재부 및 관계 부처는 지난 7·8월 2차에 걸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통해 소비자 및 판매자의 피해 지원을 진행 중이며, 유사 피해 방지를 위해 유통업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 소비자 측은 일반상품·상품권 및 여행 관련 상품의 환불을 완료하고 핸드폰 소액결제의 환불을 진행 중이며, 여행 숙박·항공권 및 기타 분야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계획
 - 판매자 측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을 통해 8월 14일부터 대출이 승인 집행 중이며, 지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대출만기 연장을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
 - 또한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피해 지원 및 제도 개선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 보증보험사 등 관련 업계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방침
 - 유통산업의 온·오프라인 융복합 추세를 고려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건전한 전자거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자거래 활성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

#금융위원회

○ 금융서비스 이용자 몰래 실행된 대출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8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금융 이용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의 사전 차단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의미
- 동 서비스는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에 더해 상호금융 및 우정사업본부를 포함한 4,012개 금융회사가 참여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필요로 인해 9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보험사 보험계약대출, 여신전문회사(금융·운용)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8월 23일부터 동시 시작
- 서비스 이용은 이용자가 현재 거래 중인 은행·저축은행, 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연 2회 문자 또는 이메일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신청 내역을 통지할 예정
- 서비스 시작 시 △신용대출 △카드론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되며, 서비스 신청자가 신규 여신거래가 필요할 경우 기존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 방문을 통해 서비스 해제가 가능
- 금융위는 향후 동 서비스의 운영 경과에 따라 △비대면 신청 △대리인의 신청 및 해제 △비대면 계좌개설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8년까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에 관한 중장기 비전을 제시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 -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을 발표

- 동 계획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응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 대응 △임무중심 R&D 혁신 등 3대 정책과제 및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 방향을 제시
- *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 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정책과제	주요 내용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대 분야 민간 중심 R&D에 5년간 30조 원 이상 지원하고, R&D 혁신거점·실증을 지원할 계획 • 세계, 정책금융 등 제도의 전략기술 기업친화적 개선 및 맞춤형 인재 양성·유지를 위한 정책 마련
기술안보 선제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안보 관련 가치공유국과의 전략기술 협력관계 강화 • 연구현장 보안관리 지침 마련 및 관리체계 내실화 • 핵심신흥기술의 신속 식별·지원·확보 추진 • 민간검용기술 투자·협력을 통해 국방 강화
임무중심 R&D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격차·경쟁력 유지 직결 핵심사업 집중지원·관리 • 전략기술 분야별 목표 달성에 대한 통합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주요 분야별 정책 협업체계 운영 •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 본격화

교육 >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는 '디지털튜터' 교육생 모집 +

#교육부

-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8월 26일부터 전국 5개 권역에서 '디지털튜터 양성 과정' 수강을 희망하는 교육생 모집을 시작
 - '디지털튜터'는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보조하여 수업용 디지털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학생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
 - 디지털튜터 양성과정 교육은 디지털 기기 활용이 능숙하고 관련 활동에 관심 있는 일반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동 교육의 이수자는 추후 각 학교 디지털튜터 채용 시 우대할 예정
 - 동 교육과정은 △디지털 기본 소양 △기기·소프트웨어 관리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으로 구성된 기본교육(50차시)과 △교육정보기술 실습 △문자 코딩 등의 심화교육(10~20차시)으로 진행
 - 각 권역별 교육생 모집 일정 및 인원은 아래와 같으며, 교육 관련 세부 사항은 '디지털튜터 홈페이지-「권역별 센터 더 보기」-「교육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 가능

구분	수도권 센터	충청권 센터	경상 I·강원권 센터	경상권 II 센터	전라·제주권 센터
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대구 강원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모집 규모	300명 이상	110명 이상	140명 이상	130명 이상	150명 이상
모집 일정	08.26(월)~09.27(금)	08.26(월)~09.30(월)	08.26(월)~09.06(금)	08.26(월)~09.12(목)	08.26(월)~09.13(금)

경제 > 2025년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 규모 편성 +

#기획재정부

- 정부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 △안전한 사회·중추 외교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
 - 부문별 예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은 △R&D(11.8%) △보건·복지·고용(4.8%) △환경(4.0%) △외교·통일(3.7%) △국방(3.6%) △교육(3.5%) △공공질서·안전(2.6%) △농림·수산·식품(1.9%) △문화·체육·관광(1.3%) △산업·중소기업·에너지(1.1%) △일반·지방행정(0.6%) △SOC(-3.6%) 순

정책과제	주요 내용
약자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 원 인상 • 장애인 긴급돌봄, 노인일자리, 아동양육비 예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환경·제도 개선을 통한 취약계층 도약 지원 • 교육·주거·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경제활력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금융·사업화·재취업 지원 • 농어민 수입안정보험 도입 및 농수산물 물가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 시스템 개편 및 ABC+ 첨단산업 투자 확대 • 수출 지원 펀드 신규 추진, 중소·벤처기업 스케일업 지원
미래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양립·돌봄·주거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강화 • 필수의료 확충 및 지역의료 복원에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의 미래도약 대방면 지원 • 지방 인제·산업·교통 혁신 확대로 지방시대 기반 마련
안전한 사회·중추 외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강도 신유형 재해 예방·대응을 위한 투자 확대 • 첨단과학수사 기반 민생범죄 근절, 국민 권리구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처우개선, 전투역량 확충 등을 통한 강한 군대 육성 • 전략 외교 및 ODA 확대를 통한 국익 창출·확대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 발전방안」, 2019.03.
- Statista, “Robotics - Worldwide”, 2024.03.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2022년 기준 로봇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23.12.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로봇산업 육성전략 수립」, 2023a.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로봇산업실태조사」, 2023b.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및 ‘주택건설실적통계’.
- 한국주택협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교육과 돌봄 최대 12시간 보장…영유아학교 152곳 시범 운영”, 교육부, 2024.08.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수도권 주담대, 지방보다 더 조인다…스트레스 금리 1.2%p 적용”, 금융위원회, 2024.08.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금융위원회, 2024.08.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내 소부장 기업, 글로벌 ‘슈퍼 을(乙)’로 키운다!”, 산업통상자원부, 2024.08.20.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위메프·티몬 피해 구제에 1조 6000억 원 지원…“유동성 공급 확대””, 기획재정부, 2024.08.2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본격 시행…“나도 모르는 대출? 실시간 차단한다””, 금융위원회, 2024.08.23.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공지능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에 5년 간 30조 원 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08.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AI 교과서 수업 돕는 ‘디지털튜터’ 교육생 800명 모집”, 교육부, 2024.08.2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예산안 677조 원, 3.2% ↑ …약자복지·경제활력 등 4대 분야 투자 집중”, 기획재정부, 2024.08.27.
- 기획재정부,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년 예산안」, 2024.08.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4-17호(2024.09.06)

발행처 인천연구원
발행일 2024년 09월 06일
주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